

영조조(英祖朝)의 유배가사 연구*

— <속사미인곡>과 <북찬가>를 중심으로

정 흥 모(대진대)

1. 문제제기

유배가사의 일차적 함의는 ‘유배의 체험을 소재로 한 가사작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유배 생활을 하지 않았면서도 작자가 ‘유배상황에 준하는 정서’를 느끼고 그것을 작품화한 것도 포괄적 의미의 유배가사에 포함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유배가사를 상정한다면, 1503년에 창작한 조위(曹偉, 1454-1503)의 <만분가(萬憤歌)>로부터 1870년에 지은 채구연(蔡龜淵, 1839-1917)의 <채환재적가(蔡宦再謫歌)>에 이르기까지 20여 편의 유배가사 작품을 꼽을 수 있다.

대략 4세기에 걸쳐 창작된 유배가사는 양반층뿐만 아니라 중인층까지 작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같은 양반이라도 유배의 동기나 정치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작품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 조선전기와 후기라는 상이한 문학적 토양의 배경까지 작용하는 까닭에 유배가사는 그 내용과 표현방식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배가사의 흐름과 특징을 일목요연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대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바, 이를 위해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배 전후의 정치상황과 그것을 바라보는 작자의 관점, 내용 및 표현 형식상의 특징, 작자의 신분과 현실적 처지 등에 대한 개별 작품 차원의 검토가 수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거시적인 안목으로 유배가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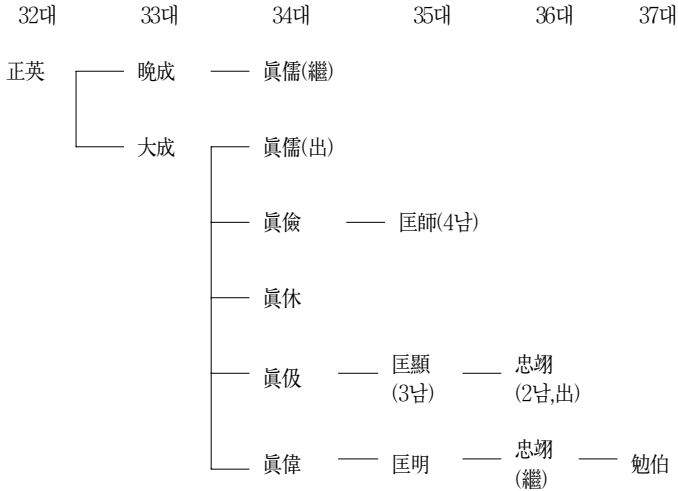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이진유(李眞儒, 1669-1730)의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과 이광명(李匡明, 1701-1778)의 <북찬가(北竄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진유와 이광명은 백부와 조카의 관계이다. 이진유는 경종·영조조의 노소당쟁 때에 소론 과격파인 김일경(金一鏡, 1662-1724)의 당(黨)으로 몰려 추자도에 귀양갔다가 다시 의금부에 불려와 물고(物故)되었으며, 그의 아우 이진검(李眞儉, 1671-1727)도 강진에 정배되었다. 죽은 이후에도 거듭되는 노론의 공격에 결국 역적으로 몰려 조카들까지 귀양을 가게 되고 집안이 폐문되다시피 하였다. <속사미인곡>은 이진유가 겪은 귀양살이의 전말을 기록한 것이고 <북찬가>는 백부가 역적으로 몰리는 바람에 연좌되어 함경도 갑산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된 이광명이 지은 것이다. 이 두 작품은 <만분가>나 <사미인곡> 같은 초기 유배가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찬가>는 당쟁에서 밀려나 폐가한 가문의 고단하고 암울한 상황을 절절하게 묘사하여 조선후기 당쟁하의 유배 생활과 그로 인해 몰락한 양반가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본고는 먼저 두 작품의 산출 배경인 경종·영조조의 노소당쟁과 그로 인한 이진유 가문의 몰락 양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두 작품의 내용과 문학적 특성을 차례로 검토하고 이어서 유배가사의 전체적 흐름에서 두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2. 당대의 정치 상황과 작품 분석

이 장에서는 이진유 가문이 처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당쟁에서 밀려나 몰락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차례로 두 작품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진유는 왕족인 전주 이씨 덕천군파(德泉君派)의 33대손이다. 가계도를 보면 다음

과 같다.¹⁾



2.1. 경종 · 영조조의 당쟁과 이진유 가문

경종 · 영조조에 벌어진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쟁은 후에 영조가 되는 연잉군(延祔君)의 세제 책봉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 경종의 건강이 안 좋아 후사가 없으니 나라의 대계를 위해 경종의 이복동생인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해야 한다는 논리는 노론의 입장이었다. 연잉군의 세제 책봉에 성공한 노론은 한걸음 더 나아가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고 나왔다. 소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하여 노론 세력을 몰아내고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김일경 등 7인의 연명으로 된 상소였다. 이 상소문을 통해 연잉군의 세제 책봉과 대리청정 문제를 주도한 노론 4대신(김창집, 이건명, 조태채, 민진원) 등을 역모로서 공격하여 노론 4대신이 위리안치되고 수많은 노론 세력이 처벌을 받았다(1721년의 신축옥사). 다음해인 1722년,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 경종을 살해하려 한다는 목호룡의 고변사건이 일어나자 노론 4대신을 포함한 수많은 노론계 인사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숙청되어

1) 이 가계도는 『전주이씨덕천군파보』(1938)에서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인물만을 발췌한 것이다.

권력은 소론에게 넘어갔다. 이 임인옥사의 과정에서 “왕세제의 이름이 수없이 거론되었으나 왕위 계승자라는 특수한 신분과 경종의 특별한 배려 덕에 무사할 수 있었다”(이성무 2000:134)고 한다. 이 사건으로 소론 세력은 권력을 온전히 잡게 되었으나 2년 후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고 영조가 즉위하자 정국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잠시 노·소간 권력교체의 계기가 되는 김일경의 상소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경종 1년 12월 6일, 사직(司直) 김일경이 소두(疏頭)가 되어 이진유·박필몽(朴弼夢)·이명의(李明誼)·정해(鄭楷)·윤성시(尹聖時)·서종하(徐宗廈)가 서명한 상소가 있었다. 이 상소를 신축소(辛丑疏)라 한다. 이 상소에서 이들은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조성복(趙聖復)과 이를 시행하려 한 노론 4대신을 ‘적(賊)·사흉(四凶)’ 등으로 명명하며 준엄하게 비판하였는데, 실록을 기록하는 사관은 김일경의 행위가 ‘토역(討逆)’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경종실록』 1년 12월 6일).²⁾ 이제 노론 4대신(혹은 노론 전체)과 김일경의 상소에 동참한 사람들은 공존이 불가능해졌다. 한쪽이 역적이 되면 반대편은 충신이 되는 것이니,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집권한 상태에서 이 상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진유 가문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고 왕세제인 연잉군 [영조] 이 즉위하자 정국은 급반전되었다. 1725년(영조 1) 영조는 을사처분을 단행하여 신축년과 임인년의 옥사를 ‘무옥(誣獄)’으로 규정했다. 이 조치로 노론 4대신은 신원(伸冤)되었다. 노론 4대신은 ‘역적’에서 ‘충신’으로 바뀌어 과천 땅에 사충서원(四忠書院)이 건립되었다. 영조로서는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세제 책봉에 앞장섰던 이들을 복권시키는 것이 필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임옥사의 주동자와 하수인 격인 김일경과 목호룡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고, 김일경의 상소에 서명했던 인사들은 유배되었다. 이진유는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 오는 길에 배소인 나주로 압송되었다가 후에 추자도에 이배되고 영조 3년에 다시 나주로 이배되었다. 그의 아우 이진검도 강진에 유배되었으며 자질(子

2) 실록은 김일경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토역’이라는 표현은 노론 4대신의 죄가 역물에 해당된다는 뜻이 아니고 김일경이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반발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썼다.

姪)들은 제직(除職)되었다.

영조 4년(戊申) 소론과 남인의 급진파인 박필현(朴弼顯)·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무신란). 이들은 경종의 독살설을 유포하면서 밀풍군(密豐君)을 추대하고, 경종의 복수를 명분으로 거병하여 한때 청주성을 점령하는 등 기세를 올렸으나 결국 진압 당했다. 무신란의 정리 과정에서 김일경의 소하인(疏下人)들에 대한 노론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진유는 서울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은 후에 혐의 없음이 밝혀져 다시 나주 배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노론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다. 영조 6년, 그때까지 살아있던 김일경의 소하 3인(이진유·윤성시·서중하)은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는다. 그해 5월 5일, 국문을 받은 이진유는 일종의 최후진술 같은 공초에서, 자신이 영조에게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과거사들을 밝혀 해명하고 안목이 없어 김일경과 절교하지 못한 점이 한스럽다고 진술했다(『영조실록』 6년 5월 5일 기사). 그리고 5월 13일, 마침내 이진유는 물고(物故)되었다.³⁾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1755년(영조 31) 1월, 전라도 나주목의 객사 기둥에 반란을 선동하는 패서(掛書)가 붙었다. 이 패서사건의 주동자는 윤지(尹志)로 드러났는데, 윤지는 을사처분 당시 김일경의 당인으로 지목되어 처벌받은 윤취상(尹就商)의 아들로서 자신도 목호룡 사건에 연루되어 나주에 유배 중이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어 소론의 명문가들은 대부분 몰락하여 거의 재기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과거의 사건에 연루된 많은 소론 인사들이 소급하여 추율(追律)을 당했으며, 죽은 지 25년이 지난 이진유에게도 역률이 추가로 시행되었다(『영조실록』 31년 3월 2일 기사).⁴⁾ 이른바 을해사옥이다.

‘역적은 3족을 멸한다’는 연좌율(緣坐律)⁵⁾에 따라 이진유의 형제와 아들,

3) 5월 5일 『영조실록』의 관련 기사 제목은 <이진유가 자신의 치적을 자평하고 역적과 절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다>이고, 5월 13일 관련 기사의 제목은 <죄인 이진유가 물고되었다>이다.

4) “김일경·박필몽·목호룡에게는 이미 역률을 시행하였으니, 윤취상·이사상과 역적 김일경 소하의 이진유·이명·정해·윤성시·서중하 및 유평휘·조태구를 아울러 역률을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영조실록』 31년 3월 2일 영조의 교시 중에서 이진유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5) “三族이란 三代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위로는 諸父(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에 미치니

조카들이 모두 유배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아버지 세대와 형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다음이라 이진유의 직계 손들과 조카들이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글씨로 유명한 이광사도 그의 조카이다. 이광명은 이진유의 막내 동생 이진위의 아들이므로 연좌율에 따라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갔으며 이 때 <북찬가>를 지었다. 이광명은 일찍이 후사가 없어 사촌 동생 이광현의 둘째 아들 충익을 양자로 맞았는데, 충익이 12세 되던 해에 양부는 함경도 갑산으로, 생부는 경상도 기장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충익은 어린 나이에 남과 북을 오가며 두 부친의 유배생활 뒷바라지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집에는 팔손 양할머니와 병든 양어머니가 있었을 뿐 백부·숙부들은 모두 귀양을 갔다. 이로써 당쟁에서 패배한 가문의 몰락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전주 이씨 명문가로서 누리던 과거의 위상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쟁에서 패배한 결과의 혹독함을 느끼게 해 주는 사례이다.⁶⁾

2.2.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이진유(1669-1730)의 호는 북곡(北谷)으로, 전주 이씨 덕천군파 34대손이다. 생부는 호조참판을 지낸 대성(大成)인데, 돈녕부 도정(都正)을 지낸 백부 만성(晩成)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1707년(숙종 33)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같은 해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교리·수찬 등의 관직을 거쳐 경종 때에는 이조참의·부제학·대사성 등을 역임하고, 1724년 경종이 죽자 이조참판이 되어 고부 겸 주청사(告訃兼奏請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갔다.

이진유가 사신으로 청나라에 가 있는 사이에 국내의 정국은 급변하여, 신축·임인옥사의 책임을 물어 김일경과 목호룡이 죽음을 당하고 신축소하(辛丑疏下) 6인도 삭탈관작되어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신축소에 두 번째로 서명했던 이진유는 나주에 유배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이것이 祖族이요, 옆으로는 형제와 그 소생에게 미치니 이는 父族이요, 아래로는 아들 및 손자에게 미치니 이는 己族이다.” 『역주목민심서』 5(1985:86).

6) 이상의 경종·영조조 당쟁의 추이에 관한 서술은 『전주이씨덕천군파보』(이필하 편, 1938), 『경종실록』, 『영종실록』, 서원섭(1991:204-246), 이은순(1993:67-104), 이성무(2000:125-198)에서 필자가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속사미인곡>은 유배생활 3년째 되던 1727년(영조 3)에 지은 것이다. 지금부터는 작품의 진행을 따라가면서 살펴보자.

봉황성 다다르며 고국소식 경심하다(...)
함정의 건져내어 선디의 편관하니(...)
구연성 노숙하고 압록강 뱃비 건너
성초탈 부리오고 초교탈 가리 시러(...)
근기 압송은 고금의 초견이오
자딜제직은 이은도 도첩하다(임기중 11권 2005:37)⁷⁾

경종의 죽음을 알리고 영조의 즉위를 상주(上奏)하는 사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죄인이 되어 유배를 가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귀국길에 만주 땅 봉황성에서 국내정세와 자신의 유배형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성초(星軹 : 고관이 타는 수레)를 버리고 초교(草輶 : 죄인이 타는 수레)로 갈아타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그러나 서울 가까운 곳에 와서야 압송을 거행하고 자식들과 조카들은 관직을 거두는 것으로 그친 데에 대해 임금의 은혜가 거둬진다며 고마워하고 있다.

선산과 가묘에 배별(拜別), 하직을 고하고 원근친척들과 ‘손잡고 이별’한 후 나주의 적소에 들었다. 그러나 노론 일파의 공격은 더욱 드세져서 죽임을 당할 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절도에 위리안치하는 것으로 상황을 무마해 준 영조가 고맙다고 작자는 서술한다.⁸⁾ 이렇게 하여 추자도로 이배되게 되었다.

행니 다차리고 금오낭을 기다릴새
엇더타 우리모군 금능의 원덕하니
문운도 건둔하고 가화도 첩첩하다
월남춘 가을밤의 기회하여 니별하니

7) 이 글에서의 작품 인용은 모두 임기중(2005)에서 하고 이하는 인용문 말미에 해당 면수만 기재한다.

8) 도거정확(刀鉅鼎鑊)이 도석의 위급일세 / 절도천극으로 중노랄 막으시니 / 종시에 곡전하심 오날이야 더욱알다(임기중 11권 2005:37)

타향대침은 이 또한 님의 은혜 (37-38)

추자도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자신을 압송할 의금부 도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동생인 이진검(1671-1727)이 강진으로 유배되어 유배지에 가는 길에 형제가 만나게 되었다.⁹⁾ 이진검은 경종 때 동부승지·평안도 관찰사·예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나, 형 이진유와 더불어 노론 공격에 앞장서다 영조 즉위 후 소론이 실각하자 강진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은 인물이다. 자질(子姪)들은 모든 관직에서 축출되고 자신과 동생은 변방의 유배지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집안의 운이 침체되어 화가 첩첩히 쌓였다’고 한탄하는 심정이 가슴에 와 닿는다. 유배당한 형제가 하룻밤 배개를 마주하고 누워 소회를 풀고 자신이 가을에 추자도로 떠날 때 동생의 유배지인 강진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헤어졌는데, 작자는 ‘이 또한 님의 은혜’라고 한다.

여기서 잠시 모든 것이 님의 은혜하고 하는 작자의 서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 ① 근귀압송은 고금의 초견이오 / 자덜제직은 이은도 도첩하다
- ② 망나의 벗기신몸 이곳의 언식하니 / 가지록 님의은혜 도쳐의 망극하다
- ③ 절도천극으로 중노랄 막으시니 / 종시에 곡전하심 오날이야 더욱알다
- ④ 타향대침은 이 또한 님의 은혜

①은 자신이 유배죄인으로 확정됐음에도 압록강에서부터 바로 압송하지 않고 서울에 다 온 다음에 압송토록 조치한 것과 자식과 조카들을 벼슬을 거두는 것으로 더 이상 처벌하지 않은 영조의 은혜가 고맙다는 것이다. ②와 ③은 자신을 죽이려는 노론 일파의 공격을 유배형으로 막아준 영조의 배려와 은혜가 망극하다는 서술이며, ④는 유배지에서 형제가 배개를 마주할 수 있는 것도 영조의 배려라는 것이다.

노소당쟁의 과정에서 영조가 소론 과격파인 이진유에 대해 호감을 가진 것

9) 인용문의 ‘묘군(卯君)’이란 ‘묘년(卯年)에 출생한 사람’이라 한다. 이진유의 형제 중에 묘년에 출생한 사람은 셋째 동생인 이진급이 유일하나 실제 강진으로 유배 간 사람은 이진검이다. (서원섭 1991:232).

같지는 않다.¹⁰⁾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이진유를 죽이고자 하는 속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도 작자는 모두가 ‘님’의 은혜라며 곳곳에서 감격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게 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사대부 지배체제인 조선 사회이기 때문에 왕에 대해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해야 하’(최상은 1994:124)는 ‘논척유배가사류(論斥流配歌辭類)’(서원섭 1991:227-228)의 공통된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의 정치상황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신축·임인 옥사의 결과 김일경으로 대표되는 소론 과격파와 노론 4대신으로 대표되는 노론 과격파는 공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했다. 신임옥사는 영조 집권의 정당성마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영조가 재위한 상태에서 노론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을사처분을 통해 신임옥사의 주동자·하수인 격인 김일경과 목호룡이 이미 대역죄인으로 노적(弩籍)¹¹⁾되었다. 신임옥사를 생각하면 이런 상황은 일종의 인과응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진유로서는 김일경처럼 대역죄인으로 몰려 집안이 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노론 일파의 불타는 복수심을 누그러뜨릴 방책이 없는 현실에서 작자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조의 자비심뿐이었다. <속사미인곡>에서 작자가 모든 것이 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는 등, 고생 끝에 배소인 추자도에 도착했다. 작은 어촌이라 집들도 누추하여 거처할 곳이 마땅할 리가 없다. 비가 새는 작고 누추한 집에 들었는데, 종이도 바르지 않은 대나무 창에 방안에는 벼룩과 이가 들끓는다. 압송관과 자신을 수행해 온 조카들과 이별하고, 본격적인 유배생활을 시작한다.

10) 영조는 집권 초기에 ‘탕평’을 정국운영의 기치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노론과 소론의 급진파를 제외한 온건파들을 중용하는 형식이었다. 소론 과격파인 이진유는 애초부터 영조의 의중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노적(弩籍) : 모역이나 반역 등을 범한 국사범(國事犯)에 대해 본인은 극형에 처한 뒤, 그 처자를 연좌시켜 노비의 적에 올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하는 처벌.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1:1136).

용슬 슈간옥 초창하를 경영할새
 도등의 모든백성 단심하여 완역하니(...)
 감군은 삼자를 벽상의 대서하고
 망미현 편액은 도등의 뉘모르리
 종일 폐호하고 주서탈 피열하니
 의리 무궁함을 늑게야 깨다랄다 (38-39)

먼저 섬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 작으나마 거처할 집을 지었다. 집의 편액은 ‘망미현(望美軒)’이라 써서 걸고, 벽에는 “감군은(感君恩)”이라고 크게 써 붙였다. 편액과 벽에 써 붙인 글씨가 다분히 상투적인 감은 있지만 절도에 유배된 ‘고신(孤臣)’의 처지와 임금의 관대한 처분으로 유배지에서 풀려나고 싶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어쩔거나 종일 문을 닫고 들어앉아 유가서(儒家書)를 읽고 그 의리가 무궁함을 새로이 깨닫는 생활은 유배지에서 갖는 나름대로의 여유라 할 수 있다.

다음 대목은 추자도에서의 생활 조건에 대한 서술이다.

- ① 낭식도 꺾절커든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장을 못먹거든 어육이야 바랄소나(...)
 도석밥 못닉일제 방 덥기 생각할가
 정도 대명일의 소국의 떡을 쑤어
 갯물의 저린 배차 상찬으로 올라시니(...)
- ② 염증도 그지업고 비습도 자심하다
 승예문맹은 백가지로 쓰지지고/샤갈오공은 사벽의 종횡하니
 한 일도 흥황업고 백악만 구비하다
 상인해물할 것 세상의 하도할샤 (39)

① 부분은 절도의 열악한 식생활을 서술한 부분이고, ②는 ①에 이어서 열악한 귀양살이의 모습을 계절에 따라 서술하는 부분 중 여름에 관련된 내용이다. 남쪽 지방의 찌는 듯한 더위에 더하여 섬 지방 특유의 습한 날씨가 사람을 괴롭히는 가운데, 파리·모기·등애 같은 날것들이 쏘아 제치고 뱀·전갈·지네 같은 해충들이 사방 벽에 기어 다니니 마음에 흥할 일이 전혀 없다.

인용문의 마지막 행은 ② 부분 전체를 중의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 정국을 주도하며 집요하게 자신을 공격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노론 과격파를 ‘상인해물(傷人害物)’하는 ‘승예문맹’과 ‘사갈오공’에 비유하고 있다고 읽을 수도 있겠다.

이어지는 부분은 두고 온 집안에 대한 걱정과 신세한탄, 그리고 외로운 자신은 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이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그런데 작자가 두고 온 집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을 찬찬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반계에 넷 페려랄 뷔여신들 뉘 덕힐고
 사셔 턴권을 고각의 못거시니
 두셔충 다 먹은들 그 뉘라셔 포쇄하며
 평천장 만원화탈 전별한들 뉘 금할고(39)

반계는 작자가 살던 반송방을 이름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을 통해 작자의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임금께 받은 많은 책이 묵혀 있으니 좀벌레가 갇아 먹은들 누가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사셔턴권’은, 영조가 책을 하사했을 리는 없으니 아마도 경종이 하사한 책일 것이다. 자신은 선왕의 총애를 받은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수법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임금이 하사한 책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훼손하는 것은 불충이 되는 일인데, 자신을 유배 보내(선왕께) 불충하게 만든 정적들도 또한 불충한 것이 아니냐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겠다. 참담한 현실에 대비하여 영화롭던 선왕(경종)시절을 그리워하는 심사도 들어있을 것이다. 작품의 앞부분 서울에서 유배지로 떠나는 부분에서도 경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바 있었다.¹²⁾

<속사미인곡>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작자가 유배의 과정과 유배지에서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유배지에서의 열악한 생활 조건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이전의 유

12) “의릉(양주에 있는 경종의 능-필자 주)을 접망하니 송백이 창창하다 / 고신원투탈 한수의 가득뿌려 / 님향한 한 수를 참고참아 떠나가니 / 내마암 이러할제 님이신들 니줄손가”, 임기중 11권(2005:37).

배가사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은 3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당대 정치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것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임금의 자비를 바라는 형식의 서술이 되었음을 살폈다. 이밖에 작품 구조상의 특성이나 유배가사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2.3. 이광명의 <북찬가>

이광명(李光明, 1701-1778)은 이진유의 막내 동생인 이진위(李眞偉, 1681-1710)의 아들이다. 1755년(영조 31) 을해사옥의 여파로 백부인 이진유에게 역률이 추가로 시행되어 이광명과 사촌 형제들이 모두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55세인 이광명은 함경도 감산으로 유배를 갔으며 이때 유배가사 <북찬가(北竄歌)>를 지었다. 이제 작품의 전개에 맞춰 <북찬가>를 검토해보자.

- ① 가련타 묘여일신 텃지간의 뉘 비홀고
 십세에 조고흐니 업안을 안다 홀가
 일성을 영폐흐니 군문조차 브라불가
 친척이 다 불이니 봉우야 니를소나
- ② 세군조차 포병흐니 심산도 머물시고
 형테는 본더 업고 계즈도 궁독홀샤
 편찬만 의지호여 지낙이 이뿐이라(임기중 8권 2005:436)¹³⁾

<북찬가>의 서두 부분으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다. 이광명은 독자로써 10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거기다 영조 즉위 후 노소당쟁의 와중에서 백부인 이진유가 의금부에서 물고되고 이진검은 강진 배소에서 죽었으며, 집안 어른들과 종형제들의 벼슬자리가 모두 끊겼다. ① 부분은 이런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독자로 태어나서 부친을 일찍 여의었으니 자식이나 많으면 좋으련만 아내가 병이 있어 자식도 낳지 못했다.¹⁴⁾ 사촌 동생 광현(匡顯)의 둘째 아들 충익(忠翊)을 계자(繼子)로 들였으나 그 역시 독자가 된 셈이니 외로운

13) 이하 작품 인용은 같은 곳에서 하고 인용 말미에 면수만 기재한다.

14) 이광명의 부인은 양명학의 대가인 하곡 정계두(霞谷 鄭齊斗, 1649-1736)의 손녀였다.

건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오직 홀어머니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내용이 뒷부분이다.

당쟁에 패해 집안이 한 번 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작자는 험한 세상의 ‘인간시비(人間是非)’를 피하려고 서울을 버리고 강화도에 내려와 살았다(해곡(海谷)에 깎히 들어 / 암혈(巖穴)에 굴취이니).

숙슈를 못 니워도 슬하의 당시하여(…)
아들노릇 딸노릇 유·회를 일삼으며
친년이 점고하니 원유를 의스홀가
절스길도 못 듯닐제 지당이 결연홀샤
집 뒤해 텃장하고 묘석의 침비하니(…)
천만근심 다 브리고 여싱을 즐기려니
경심타 지어양에 묵은 불 넘어나니 (437)

홀어머니께 효도하며 세상의 근심을 잊고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심정을 노래했다. 모친이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잠시도 곁을 떠나있기가 어려워 부친의 묘소도 집 뒤에 이장하여 조석으로 침배하며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자 한다고 했다. 당쟁에서 패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냈다.

이처럼 조심스럽게 숨죽이며 살았지만 세상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인용 부분의 마지막 행은 나누목 객사 패서사건으로 촉발된 을해사옥의 결과로 이진유가 역률로 추시(追施)된 상황에 대한 언술이다. 백부인 이진유가 물고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당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역적의 조카가 된 작자는 스스로 향옥(鄉獄)에 나아가 나라의 처분을 기다린다. 자신은 이미 살만큼 살았으니 미련이 없지만 늙으신 홀어머니 걱정이 태산 같다.¹⁵⁾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유배형이 내려서 임금의 은혜에 감읍하고 유배지로 떠나게 되는데, 모친과 작별하는 정경을 곡진하게 묘사했다.

15) “일신의 회복이야 피창(彼蒼)만 미다신들 / 외로우손 우리편모 놀노하여 위안홀고”. 임기중 8권 (2005), 437. 이 때 작자의 나이 55세였다.

흐르밤 흐르나줄 손잡고 작별홀시
 늑십쇠년 빅발옹이 팔질(八耋)병친 써나올제
 수천니 흐업슨 길 다시 보기 괴약홀가
 이내 정경 이내 이별 고금의 듯도 못희
 일식도 참담커든 털석인들 건딜손가
 친의를 진경허려 모진모음 둘너먹고
 설운간당 설이답아 눈물을 츄고츄아
 하딕하고 문을 나니 가슴이 터지거다(437-438)

육십이 다 된 늙은 아들과 팔십 노모가 하루 밤낮을 손을 잡고 작별의 슬픔을 나누다가 모진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직할 때의 ‘가슴이 터지’는 듯한 심사를 노래했다. 가문에 닥친 환란도 그렇거니와 독자로 태어나 10세에 부친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외롭게 살던 작자의 형편을 생각하면(모친의 입장도 같다), 다소 길게 인용한 이 부분에서, 전형적인 표현이라거나 감정의 과잉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가슴 한쪽이 아릿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이후는 갑산까지 유배의 노정과 소회를 서술하고 있는데 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피하는 모습을 보고 세태의 무상함과 신세의 곤액(困厄)함을 한탄하기도 한다. 길주 명천을 지나 안변에 도착했을 때, 계자(繼子) 충익의 생부이자 자신의 사촌 동생인 광현이 경상도 기장으로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절망한다.¹⁶⁾ 마침내 갑산 배소에 도착했으나 북변의 첩첩산중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삭풍은 들어치고 스산은 육인골이
 희묵은 얼음이오 조쥬의 눈이 오너
 빅초가 선녕커든 만곡이 될세업니(...)
 소치도 주리거니 어육을 생각홀가
 가족웃 과하히니 포피로 어한 엇지(439)

다음으로는 유배지에서의 걱정, 신세한탄이 이어지다가 임금이 은혜를 배

16) “안변 참보 경통하다 도청도설 꿈이과져 / 녕남극변 계도가니 삼분오닐 수절홀사”. 임기중 8권(2005), 438.

풀어주기를 바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그런데 유배지에 도착한 다음의 서술은 거의 대부분이 고향에 계신 노모를 걱정하는 내용이어서 여타 유배가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밤밤마다 꿈이 뵈니 꿈을 돌려 상시과져
학발조안 못보거든 안독서신 즈줄염은
기드린들 동이 올라 오노라면 돌이 넘네(...)
어느 때에 즈으시며 무스거술 잡습논고
일점으리 숲히더니 어느 즈손 디신희고
나 아니면 뉘 뵈시며 즈모뵈기 날 뉘 꺾고
늪의 업슨 모즈경니 슈유상니 못흐더니(...)
긴긴 낮 김흔 밤의 천니상스 한굴꺾히(440)

작자의 언술대로 보통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자간의 정리(情理)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독자로 태어나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슬하에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편모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작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지극한 효심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정쟁에서 패한 집안의 상황과 무관하다 할 수는 없다. 부친은 5형제 중 막내였으므로 작자에게는 네 분의 백부가 있었다. 첫째와 둘째 백부는 정쟁의 와중에 죽었고, 셋째 백부와 생부는 당쟁과 상관없이 일찍 죽었다. 넷째 백부가 비교적 오래 살았으나 당쟁에 패해 무너져가는 집안에서 열 네명이나 되는 자질(子姪)들을 자상하게 거두어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무관한 세인들 또한 가까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니 작자가 느꼈을 소외감과 고독감을 짐작할 수 있다. “나 아니면 뉘 뵈시며 즈모 뵈기 날 뉘 꺾고”라는 구절이 이러한 정황을 함축적으로 시사한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집안을 사지로 몰아가는 현 정국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 의식은 있었을 법하다. 하지만 작품 어디에도 현 정국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말로장신(末路藏身) 덜흐던가 석일건양(昔日愆殃) 못찌칠다 / 턴명인가 가운인가 뉘뵈시라 원망홀고”(임기중 8권 2005:440)라 하여 기구한 자신의 신세를 천명과 가운(家運) 탓으로 돌릴 뿐이다. 작자 개인의 소극적 성격도 있겠지만, 죽은 지 25년이나 지난 사람에게 역률을 추시하고 그 조카들까지도 유배를 가야 하는 험한 정국이 작자의 의식을 위축시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혹시 작자는 <청산별곡>에서처럼 ‘괴리도 괴리도 업 시 마자서 우니로라’의 심정은 아니었을까?

<북찬가>에는 일반적인 유배가사에 나타나는 유배당한 현실과 정적에 대한 발분적 정서도 없고 임금을 그리워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읍하는 내용도 없다. 오직 신세 고단(孤單)함을 한탄하며 노모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있을 뿐이다. ‘수기치인’ 같은 사대부로서의 이상은 꿈도 못 꾸고 그저 노모를 모시고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소시민’적 소망만이 있을 뿐이다. 조선 후기에 계속되던 목숨을 건 당쟁이, 패한 가문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당쟁에서 패한 집안이라고 해서 영원히 숨죽이고 살라는 법은 없다. 열 두살 때 생부와 양부가 경상도 기장과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 어린 나이에 두 부친의 귀양살이 뒷바라지에 고생을 하던 이광명의 계자 이충익은, 아들 면백(勉伯)이 순조 1년 증광시에 합격하고 순조 15년에는 손자 시원(是遠)이 장원급제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해에 죽게 된다. 구한말의 유명한 문장가 이건창(李建昌, 1852 - 1898)은 이충익의 고손자이다.

3. <속사미인곡>·<북찬가>와 유배가사의 흐름

가장 이른 시기의 유배가사는 연산군 때 조위(曹偉, 1454 - 1503)가 지은 <만분가>이다. <만분가>는 유배가사의 효시작으로서 후대의 작품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작품에는 유배가사에 나타나는 정서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왕궁(王宮)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연군의 정서’와 ‘유배 생활을 야기시킨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발분적 정서’가 모두 들어있다. 또한 ‘시적 상황을 임과 이별한 여인이 임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박일용 1992:608) 한문문화권에서 전형화된 충군연주지사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받고 있다. 아울러 모순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옥황상제와 천상계를 작품 배경으로 설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최상은 1994 110-111). <만분가>에 나타난 이러한 정서와 시적 상황 설정, 그리고 작품 배경으로 천상계를 설정하는 것 등의 요소들이 이후의 유배가사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철(鄭澈, 1536-1593)의 <사미인곡>·<속미인곡>과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의 <별사미인곡> 등은 여인이 임을 그리워하는 시적 상황 설정과 천상계의 존재 등에서 <만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¹⁷⁾ 다만 이 작품들은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발분적 정서는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임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만을 확대 심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군가사’라는 별도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한편, <북관곡(北關曲)>은 연군가사류와는 다른 측면에서 <만분가>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북관곡>은 효종비의 복상(服喪)과 관련된 2차 예송에서 패한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1675년 함경도 덕원으로 유배 갈 때 할 아버지를 배행한 송주석(宋疇錫, 1650-1692)이 지은 것이다. 이 작품에는 당대의 정치 상황에 대한 발분적 정서가 작품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정적(政敵)인 남인들을 ‘간신’·‘흉인(凶人)’이라 칭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하느라 임금을 그리워할 틈이 없지 않았겠는가 생각될 정도이다. 아울러 이 작품은 이전의 유배가사들과 달리 유배행의 노정을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¹⁸⁾ 유배행의 노정과 지나가는 곳곳에서 느끼는 소회를 기록하며 유배지에서의 풍물을 기록하는 것이 후대 유배가사의 한 흐름으로 되고, 이러한 특징이 일부 유배가사를 기행가사의 범주에 넣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북관곡>은 유배가사의 새로운 흐름을 여는 작품이다.

<속사미인곡>은 작품의 제목은 물론이고 시적 상황 설정에서 일단 연군가사류와 궤를 같이 한다.

- ① 내언제 무심하여 님의게 득죄한가(...)
내얼골 곱뎠던지 질투할산 중녀로다
유한한 이내몸을 선음한다 나라노쇠
- ② 우리님 아니시면 눈을 다시 의지할고(...)

17) 물론 이 작품들이 배경으로 설정한 천상계의 작품내적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상은(1994)에서 잘 정리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18) 유배행의 노정과 그곳에서 느끼는 소회의 기록이 후대의 그것처럼 상세하지는 않다. 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니천 따 광주 따을 밤낮을 지낸후에/신릉을 바라보고 여름으로 강을 건너/장안 지척을 걸으며 지난말이/ 부운이 응울하여 천일을 가려시니/처량한 이 행색을 어니구러 빗최실고”, 최강현(1996), 43-44.

지하로 오살짓고 부용으로 치마지어
협등의 두어신들 놀위하야 단장할고(...)
옥누 높은 곳의 야야의 님을 뵈셔

①은 작품의 서두 부분이고 ②는 끝 부분이다. 이 부분만을 보면 그 서술 방식이 <사미인곡>과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작품의 곳곳에서 임금의 은혜를 고마워하며, 유배지의 거처에 ‘망미현’이라 편액을 걸고 벽상에는 ‘감군은 삼자’를 써 붙였다는 언술, 그리고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발본적 정서가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통해서 이 작품이 연군가사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자도로 가는 뱃길에서 풍량을 만난 일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유배지에서의 생활 경험과 추자도의 풍물에 대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이전의 유배가사에서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천상계의 설정이 사라진 점과 경험적 현실만을 소재로 하는 사실성의 특징에 착안하여, 이 작품이 ‘조선 후기 가사 중 서사화 경향을 띠는 작품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최상은 1994:129)고 본 견해는 주목할 측면이 있다. 다만 여기서는 유배가사의 흐름상, ‘경험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특징’이 <속사미인곡>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북찬가>에서는 천상계의 설정은 물론 여성을 시적 자아로 내세우는 설정도 완전히 사라졌다. 유배행의 노정과 소회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북관곡>의 흐름을 이어받은 것이다. 유배지의 풍정과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속사미인곡>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당대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연군적 정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노모를 그리워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작자에게는 유배라는 상황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보다는 유배가 가져온 노모와의 별리가 더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다.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검토했거니와, 어쨌든 이것은 이전의 유배가사에서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흐름이다.

유배가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연군의식이 두드러진 작품이 창작되다가 후기로 갈수록 기행가사적 성격과 현실적 경험의 서술이 주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속사미인곡>에 보이는 경험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유배지의 생활 경험과 풍물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는 특징들과, <북찬가>에 보

이는 노정의 상세한 기술과 개인적 고난을 강조하는 서술 태도 등의 특징은 후대의 <만언사>와 <채환재적가>에서 더욱 심화된다. 이 글에서 검토한 두 작품이 유배가사의 전개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이 지점이다.

4. 마무리

경종·영조조 노소당쟁에서 패하여 죽음을 당한 이진유와 그에 연좌되어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광명이 창작한 유배가사 <속사미인곡>과 <북찬가>를 검토하고, 유배가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 작품들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자신을 유배시킨 정적들에 대한 발분적 정서, 그럼에도 한 가닥 은정을 베풀어 준 임금에 대한 연구지정,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 유배의 노정과 사회 서술, 유배지의 생소한 풍물과 열악한 생활 환경 서술 등이 유배가사의 내용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유배가사 작품은 없다. 각자의 상황과 관심사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를 확대하고 강조 하해서 엮어낸 것이 유배가사 작품들인 것이다.

유배가사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군적 정서’에서 ‘유배 경험의 사실적 기술’ 쪽으로 변모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개별 작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가사의) 서사화 경향’(최상은 1994)이나 ‘작자층과 독자층의 하향화’(유정선 2007) 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배가사의 이러한 경향의 실질을 천착하고 그 원인을 구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터인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작품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이필하 편(1938), 『全州李氏德泉君派譜』, 이문사.
간행위원회(1997), 『국역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시디롬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한국인물대사전』, 중앙M&B.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임기중 편(2005), 『한국가사문학원전연구』, 아세아문화사.

2. 논저

- 서원섭(1991),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박일용(1992), <만분가>의 형상화 형태,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이은순(1993), 『조선후기 당쟁사 연구』, 일조각.
최상은(1994), ‘연군’가사의 짜임새와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5.
최강현(1996), 『기행가사자료선집』 1, 국학자료원.
이성무(2000), 『조선시대당쟁사』 2, 동방미디어.
정약용저/다산연구회역주(1985), 『역주 목민심서』 5, 창작과비평사.
이현주(2001), 유배가사의 연구, 전남대박사학위논문.
유정선(2007), 예의와 현실 사이의 거리,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Abstracts】

The Study on the Gasa of exile in the King Young-Jo Period

Jung, Heung-mo

The Study on the Gasa of exile in the King Young-Jo Period

<Soksamiingok> is the old form of Korean verse which was created by Lee Jin-yoo(李眞儒, 1669-1730) when he was sent into exile, and <Bukchanga> is also the old Korean verse created by Lee Kwang-myung(李匡明, 1701-1778) during his banishment. Lee Jin-yoo and Lee Kwang-myung were the uncle and the nephew. Lee Jin-you, the uncle, was banished because he was defeated in a party dispute, and he died from torture when he was caught again after the banishment. As he was branded as a traitor after 25 years from his death his nephews including Lee Kwang-myung were banished too.

<Soksamiingok> has the same form with the former term of the Choseon Dynasty's Korean verse, Gasa, to pine for the king. However its matter is the record of empirical fact so that it leads the new tendency of the late period of the Choseon Dynasty's Gasa which is to pine for the king. <Bukchanga> opened up a new aspect of Gasa by its description

emphasizing the suffering of the individual by exile rather than the political inclination.

Key Words : Soksamiingok, Bukchanga, Gasa of exile, party dispute, Gasa pining for the king, record of empirical fact.

이 논문은 2008년 6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08년 7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